

# 미세먼지로 골프 취소, 왜 패널티 적용하나

**봄철 성수기 라운딩 취소 몸살  
패널티 적용에 회원 항의 잇따라  
장시간 외부 활동, 건강에 치명적  
천재지변 포함 등 규정 검토를**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66세)는 지난 3일 친구들과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티오프를 준비하던 중, 눈이 따갑고 심하게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릴 만큼 가득 찬 미세먼지가 원인이었다. 평소 호흡기가 좋지 않았던 김 씨는 라운딩을 포기했다. 하지만 골프장측은 라운딩을 취소할 경우, 2개월 예약 정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는 취소 가능한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게 골프장측 입장이다. 김씨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할 만큼 심하다면 골프장들이 예약 취소 규정에 미세먼지도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국 골프장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봄철 성수기가 막 시작됐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라운딩을 취소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입장에서 미세먼지가 취소 가능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지만,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 취소 가능 규정에 포함해야  
5일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A골프장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기 시작한 지난 3·1절 연휴 골프 취소 문의가 이어졌다. 무단 취소로 인한 예약 정지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반발하는 회원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지난 1일부터 6일 까지 6일간 경기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120 $\mu\text{g}/\text{m}^3$ 를 넘나들었다. '매우 나쁨'으로 분류되는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75 $\mu\text{g}/\text{m}^3$ )을 훌쩍 넘긴 수치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미세먼지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당일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골프장들은 대체로 정해진 기간 이후의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당일 취소시에는 1~2개월의 예약 불가, 마일리지 차감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 당일 약 취소 가능 사유는 대체로 강설, 폭우, 천둥번개, 심한 안개 등의 천재지변이다.

A골프장 관계자는 "회원들의 항의가 있어도 미세먼지가 취소 가능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패널티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골프장을 찾은 회원과 고객들 모두에 초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 라운딩 중에도 꼭 쓰도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골프장들은 취소 규정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골프장도 늘고 있다. 하루 이틀 전에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확인해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 부과 없이 취소가 가능하거나, 예약 날짜와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취소 가능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취소 가능 사유에 적용한 골프장도 나타났다. 이스트밸리, 태광CC 등은 올해부터 미세먼지도 취소가 가능한 천재지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골프장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어느 천재지변보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휴장하는 것이 낫다"며 "회원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차차 검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50대 이상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오랜 시간 실외 공기에 노출되는 운동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강남세브란스 장운수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랫동안 실외에 머물 경우에는

KF(Korea Filter)94 이상은 착용해야 안전하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F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 KF94는 94%의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에는 KF80, KF94, KF99 마스크가 제품이 판매 중이다. KF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그만큼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마스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미세먼지의 침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골프와 같은 장시간 외부 활동은 금하는 것이 좋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 아니라 눈 점막과 피부를 통해서도 흡착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가 혈관으로 침투해 혈관 점도가 올라가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어 50대 이상은 최대한 장시간 외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30대女 갑상선·40대女 빈혈 '조심' "건강이 최고... 전기식 섭취·운동으로 관리"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13% 늘어  
여성 다빈도 질환 사전관리 필요**

지난해 갑상선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상선과 자궁 질병의 경우 30대부터 발병이 급증해 꾸준한 정기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여성인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은 질병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순위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월등히 많은 질병은 '갑상선'이 대표적으로, 2018년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 환자수는 29만 206명으로 남성보다 4.5배 많았고, 여성의 진료비는 1936억1139만 원으로 남성의 진료비보다 3.4배 높았다. '갑상선 악성 신생물'의 여성 연령대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5.1배, 5.2배로 여성 환자가 많았다.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료받은 여성 환자수는 남성과 비교하면 5.3배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부터 진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알려진 '갑상선독증' 역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5배 높았다.

'월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여성이 9만

7819명으로 남성의 16.9배로 나타났다.

또 여성은 혈중 칼슘, 인의 수준을 조절하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을 돕는 '비타민 A'의 결핍으로 남성보다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 남성보다 '비타민D 결핍' 3.7배, '비타민A 결핍' 2.2배, '식사성 칼슘 결핍' 6.9배 더 진료를 받았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은 50대까지 서서히 증가했고, '비타민A 결핍'은 20대 환자수가 가장 높았다가 점차 줄어들었다.

자궁 관련 질병의 경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연평균 2.1%, 진료비는 연평균 6.3% 늘었다. 특히 40대 환자가 1만 70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궁근종'의 환자수와 진료비는 2009년부터 연평균 6.0%, 7.8% 증가했다. 자궁근종 역시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했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환자수와 진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5.7%, 14.1% 급증했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은 주로 30~40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젊은 연령층에서 자궁 관련 질병 환자수의 증가 폭이 커 젊을 때부터 정기검진을 통해 해당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것을 당부했다.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도 크게 늘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의 환자수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연평균 7.5%)했으며, 진료비는 626억 7786만 원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13.1%로 대폭 증가했다. 주로 50대부터 발병하여 60대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20~69세 남녀 1200명 설문조사  
피로회복·면역력·건강증진 제품 찾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생에서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건강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운동·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7일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관련 설문조사(중복응답 가능)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95.8%가 '인생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관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을 보였는데, 평소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노력한다(66.5%)'와 '항상 운동하려고 노력한다(50.9%)'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식이요법과 운동이라는 기본적인 관리법 외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47.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로 '정기적인 검진(37.4%)' '양약·한약 복용(37.2%)'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고 있는 건강 문제는 '피로회복(35%)'이 우세했으며, '면역력 증진(26.9%)' '전반적 건강 증진(18.8%)' '스트레스(17.4%)' '눈 건강(11.8%)' 등이 상위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 데이터를 보면 남성은 '간 건강(8.8%)'에 대해 걱정하며, 여성은 '면역력 증진(32.1%)' '여성 갱년기 건강(17.4%)' '관절 건강(15.7%)' '눈 건강

(15.5%)' '체지방 감소(14.5%)' 등 비교적 다양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55.9%)이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 금액으로는 '5~9만원(21.1%)'이 가장 많았고, '3만원 미만(20.7%)' '3~4만원(14.1%)' 순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비율은 약 17%였다.

건강기능식품 관계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 위협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해보고, 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세븐일레븐 '매일우유맛 소프트콘' 100만개 판매 돌파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매일우유맛 소프트콘(사진)'이 출시 80일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12월 20일 출시한 '매일우유맛 소프트콘'은 매일우유와 협업해 선보인 프리미엄 디저트 아이스크림이다. 매일우유의 원유를 사용해 우유 본연의 진한 맛을 그대로 구현했으며, 유지방 함량이 높아 크림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프트콘에 과자나 젤리를 붙여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SNS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일명 '인싸템(그룹 내 주류인 인사이더의 아이템이라는 뜻)'으로 떠오른 상품이다.

또한 집에서 디저트를 즐기는 홈디(Home-Dessert)족의 영향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계절 구분 없이 상품을 소비하는 시즈리스(season-less) 트렌드도 매일우유맛 소프트콘 인기의 견인했다.

'매일우유맛 소프트콘' 인기는 아이스크림 판매 베

스트 순위까지 바뀌 놓았다.

'매일우유맛 소프트콘'은 다른 베스트 아이스크림과 비교했을 때 평균 3배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높은 고객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수기 시즌에 아이스크림 단품이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수치라고 세븐일레븐 측은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